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2월 18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글로벌도시기획단	담당자	• 유치지원팀장 한창현 ☎440-3406 • 담당자 곽초롱 ☎440-340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재외동포청 최적지는 인천”

- 인천시-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 문화협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지지선언 -

고려인 최대 거주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했다.

앞서 지난 11월 유럽 한인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한데 이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도 지지를 선언하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시간으로 17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 문화협회(이하 고려인 협회)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려인 협회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특유의 근면성으로 정착에 성공했으며, 오늘날 정·재계, 문화예술계 등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 중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2020년 말 기준 17

만 5,865명으로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다.

고려인 협회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18만여 명의 고려인 사회를 대표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공식적인 한인 단체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991년에 설립됐으며, 22개 지부를 두고 문화·교육사업 및 한국-우즈베키스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천시와 고려인 협회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관 건립 등 역사·문화보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고려인 협회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을 통해 근대 이민 출발지로서의 역사성과 관련 자산, 경제자유구역 등 재외동포 친화적인 환경과 우수한 접근성 등을 인천시의 경쟁력으로 꼽으며 재외동포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도시임을 밝혔다.

빅토르 박 고려인 협회장 겸 우즈베키스탄 국회 하원부의장은 “고려인에 대한 인천시의 관심과 지원의지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외동포청의 최적지가 인천시라고 확신하며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우리 시에는 귀환 고려인 6천여 명 이상이 거주하는 함박마을이 있어 고려인 사회와 인연이 깊다”며 “한민족 해외이주 역사의 산 증인이자 개척자인 고려인 동포들의 지지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역사·문화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09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